

금호타이어 매각 오늘 중대 분수령

금호산업, 상표권 사용료율 0.5% 20년 보장 제안

더블스타 수용 여부 토보...채권단 주주협 대응방안 논의

12일이 금호타이어 매각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날이 될 전망이다. 이날 중국 더블스타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내놓은 상표권 사용 요건에 대한 입장을 채권단에 통보할 예정이어서 수용 여부 등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채권단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채권은행은 12일 주주협회를 열고 더블스타의 입장을 확인한 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박삼구 회장 "20년간 0.5% 요율 내리" 조건부 제안>=현재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이 새로 제안한 상표권 사용 허용 요건 등이 더블스타에 전달된 상태다. 더블스타는 5년 사용 후 15년 추가 사용, 자유로운 해지, 사용 요율 매출액의 0.2%를 요구했으나 박 회장 측은 20년 사용, 해지 불가, 사용 요율 0.5%로 수정 제안을 했다.

'해지 불가'라는 걸림돌에도 사용 기간은 20년으로 양측 의견이 비슷하지만 사용 요율에서 양측의 입장이 크게 차이나 더블스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상표권 사용은 매각결절을 위한 선결 조건이어서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더블스타

는 언제든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더블스타가 박 회장의 제안에 대한 입장을 12일 오전 중으로 채권단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져 이날이 금호타이어 매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더블스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현재로는 사용료 협상 혹은 수용 불가다. 박 회장의 수정 제안대로 요구안의 2.5배나 되는 사용료를 지불하겠다는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더블스타가 협상에 나설 여지는 있다. 금호타이어가 외국 회사에 팔리는 상황에서 그룹 계열사로 있을 때처럼 낮은 사용료를 받을 수 없다는 박 회장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경쟁사인 한국타이어의 상표권 사용 요율인 0.4%로, 현재 금호타이어의 요율인 0.2%보다 높다.

<더블스타 수용 여부가 관건>=거부 땐 매각 물거품=변수는 박 회장의 협상 의지다. 그동안 상표권 사용 허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박 회장이 더블스타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역제안했다. 이런 행보가 더블스타와 사용료를 협상하기 위해

■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료 협상 조건

	2017년6월5일 산업은행 요청(案)	2017년6월5일 금호산업 최종제시
사용기간	20년(5년+15년)	20년 보장
사용요율	매출액의 0.2%	0.5%
사용권리	독점적(동일업종 진출 불가)	
해지권리	언제든지 더블스타 일방적 해지 가능 (3개월 이전 서면 통지로서 해지 가능)	해지불가

서가 아니라 매각을 방해했다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알리바이'로 볼 수 있다.

박 회장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상표권 사용을 허용해줄 수 없다고 하면 매각 방해 행위로 간주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채권단과 박 회장간 맺은 약정서에는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의 매각을 방해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향후 금호타이어 인수를 꾀하려는 박 회장로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처지다.

더블스타가 협상 대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더라도 채권단은 바로 더블스타와 매매계약을 취소하기보다는 최대한 매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금호타이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8년 가까이 노력해왔는데

현실적인 대안인 매각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은행은 아울러 12일 주주협회에서 1조3000억원 어치 채권의 3개월 만기 연장안 결의안을 연기하는 방안 등 향후 매각 절차 일정도 재조정한다.

채권은행이 만기 연장안에 대한 거부로 15일까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회신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그날까지 입장을 결정하기 어려워 회신일을 다음주로 미룰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와 국내 대리점주들은 12일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광주시 서구 화정동 더블스타 광주광역시당 앞에서 금호타이어의 중국 더블스타 매각 반대를 위한 항의 집회를 열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보해, 일제주 수익금 여수 발전기금 기부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는 여수에서 유통된 일제주 판매수익금 일부를 여수 일대 음식점 위생 개선을 위해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보해양조는 지난 9일 여수지역 문화회에서 주최한 여수시장, 최종선 여수 부시장, 채원영보해양조 사장, 이부규 여수위생단체협의회 회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보해는 올해 초 여수지역 음식문화 발전에 앞장서겠다는 협약을 여수위생단체협의회와 맺었다. 이후 여수지역에서 유통된 일제주 판매 수익금의 일부인 900 만원을 모금해 전달했다. 기부금은

하반기 중 여수지역 음식문화개선사업 교육과 홍보 사업비로 활용될 계획이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매년 100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리는 여수지역이 음식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더 많은 관광객이 찾기를 기원한다"며 "보해는 지역기업으로서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해양조는 지난 1월 화재로 큰 피해를 본 여수 수산시장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수용 생선과 멸치 등 3630만 원 어치 건어물 세트를 구입했다. 또한 여수 지역에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 상생에 힘쓰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월세에 허리휘는 서민

지난해 저소득층 72.3% 거주...소득 27% 임대료로

소득의 약 30%가 월세로 나가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되, 전월세상한제는 지방, 저가주택에 차별 적용하는 등 '맞춤형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주택임대 수익률 분석과 취약계층 주거안정 관련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최근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은 여전히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을 소득계층별로 보면 저소득층(소득 1~4분위)은 평균 26.7%다. 중소득층(5~8분위·18.9%)이나 고소득층(9~10분위·20.6%)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RIR 30% 이상인 '임대료 과부담 가구' 비중은 저소득층이 37.8%로 중소득층(13.9%)과 고소득층(21.8%)보다 16% 포인트 이상 높았다.

국내 주택시장에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며 저소득층 집값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저소득층 주거 형태 중 월세 비중은 72.3%를 기록했다.

반면 중소득층은 51.5%, 고소득층은 34.3%로 저소득층보다 월세 비중이 월

씬 낮았다.

보고서는 "임대가격 산정 기초가 되는 전셋값 안정이 취약계층 주거안정에 필수적 요소"라며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바우처 사업 등으로 취약계층 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고서는 새 정부가 주거안정대책을 지역, 주택유형, 임대가격별로 차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검토 중인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지방권, 연립주택 등 저가주택에 차별적 적용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5	9	12	30	39	43	24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2,078,969,954	8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43,999,365	63
3	5개 숫자 일치					1,277,401	2,170
4	4개 숫자 일치					50,000	106,121
5	3개 숫자 일치					5,000	1,680,080

광주은행, 대학생 SNS홍보대사 발대

017 광주은행 대학생 SNS홍보대사 발대식



LH, 용산지구 준주거지 등 12필지 입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정기)는 광주시 동구 용산지구 준주거용지 등 총 12필지(9610㎡)를 입찰방식으로 일반 실수요자에게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용산지구는 주변 일대가 체석산을 비롯한 보전녹지와 개발제한구역 등 풍부한

자연환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이른바 '숲세권'으로 불리는 지역이다.

제2순환도로 봉선IC와 효덕IC, 지원교차로를 통한 광주 시내·외로 진출입이 용이하고 지하철 1호선 소태역과도 인접해 있다. 인근에는 대광여고, 대성여고, 동아여고, 문성고 등 학군이 형성돼 있다.

한전, 감사원 평가 'A등급'

공공주택 입주시기인 2019년 5월에 맞춰 봉선동~용산지구~지원동으로 연결되는 왕복 4차선 도로가 개통될 예정이다. 공급물량은 준주거용지 10필지(7127㎡), 주차장용지 2필지(2483㎡)이며 21~22일 입찰신청을 받아 공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LH홈페이지 또는 LH 토지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하거나, LH 광주용산PM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대성기자bigkim@

한국전력(사장 조원익)은 감사원이 주관하는 2017년도 '자체감사활동 평가' 결과, 공기업군 중 'A등급'을 획득하였다. 감사원은 중앙행정기관 등 208개 기관의 지난해 자체감사활동을 평가한 결과, 총 31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고, 공기업 중에는 한전, 수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4곳이 선정되었다. /최재호기자 lion@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삼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시술 전

시술 후

시술 전

시술 후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대산 종합 인테리어 사업부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짐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심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010-8628-0482